

## “주상숙 역할, 내가 딱! 뜻밖의 행운이자 선물”

이번엔 김무열과 함께 배꼽도둑 전편보다 웃겨야한다는 부담감! 주연배우 타이틀 어색하고 신기 55세까지 '무사고' 연기하는게 꿈

배우 라미란(47)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인다. 원톱 주연한 '정직한 후보2'의 28일 개봉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런 듯하다. 갑염병 상태 초기였던 2020년 2월 개봉해 153만 관객을 모은 영화의 속편을 선보이며 “전편의 ‘따따블’ 흥행”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2020년 1편을 통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여러분의 ‘배꼽도둑’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던 그는 “그때 그 말은 왜 했나 싶다”며 부담감을 말했다. 절친한 친구인 개그우먼 김숙이 “희극인도 하지 않을 말을 했다”며 혼내기까지 했다고 돌아봤다.

그래도 표정만은 밝았다. “잘 뽀힌 영화”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속편이)후회가 될지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해보는 게 내 삶의 목표”라고 말하는 라미란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다.

### ● “나 아닌 주상숙은 없어”

전편에 이어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된 국회 의원 주상숙을 연기한 라미란은 “나 아닌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주상숙은 떠올릴 수 없다”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주상숙은 주연상 수상부터 속편까지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준 선물”이란다.

“시리즈가 계속된다고 해도 다른 배우가 연기하긴 힘들 거예요. 다른 배우가 맡게 된다면 아예 다른 작품이 되지 않을까요? 주상숙이라는 인물의 시작과 끝은 제가 해야죠.”

전편과 달리 비서 역의 김무열과 코믹 분량을 나눠가져 “혼자 웃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었다. “혹시 ‘안 웃기다’는 말을 들으면 무열이에게 떠넘겨야겠다”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무열이가 코미디 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싶어 통쾌했죠. 저 혼자 힘들 순 없잖아요? 그래도 무열이가 제가 비밀 수 있는 언덕이자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돼줬어요. 새롭게 합류한 악역 윤두준 씨도 제 몫을 잘 해줬어요. 두준 씨처럼 우리 영화에 여성 관객을 유입시켜줄 ‘젊은 피’가 필요했어요. 무열이가 이제 좀 갖거든요. 하하.”

### ● “코미디만 하는 배우 아냐”

“정직한 후보”가 “라미란표 코미디”라 불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는 “각본을 쓰고 연출한 ‘장유정 감독표 코미디’”라고 했다. 앞으로 출연한 어떤 영화에도 “라미란표 어떤 것”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런 말 자체가 고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코미디 퀸’이란 말도 원하지 않아요. 전 코미디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작품을 택할 때도 코미디 이후엔 다른 결의 작품을 택하려고 해요. 11월 개봉하는 주연작 ‘고속도로 가족’은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영화죠. 사실 이런 작품이 저와 더 잘 맞아요. 코미디는 너무 어렵거든요.”

아직도 “주연배우”라는 타이틀도 어색하다고 말한다. 지금도 주연 제안이 올 때마다 “내게 왜?”라고 생각할 정도다. “주어진 모든 기회”가 “신기하고 감사”할 뿐이라며 웃는다.

“주연작을 한 네 편정도 맡아먹으면 제안을 안 해주시겠조 뭐. 하하. 감사하게도 ‘걸캅스’, ‘정직한 후보’까지 주연한 영화들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연명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주·조연에 연연하며 연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연을 하면 더 부담이 커요. 그저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건강히 허락할 때까지 행복해 하며 오래 연기하고 싶어요. 한 55세까지는 괜찮겠조? 하하.”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 배우 라미란이 '정직한 후보2' 개봉을 앞두고 "이제 내가 아닌 다른 배우가 주연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화"라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NEW

## “너무 잔혹해” vs “놓칠 수 없는 작품” 청불 ‘늑대사냥’ 혐오와 박수 ‘극과극’

박스오피스 1,2위 넘나들며 논쟁 뜨거워  
해외선 호평...김홍선 감독 WMB와 계약



‘늑대사냥’의 한 장면

한국영화에서 보기 드물게 잔혹함을 보여준 ‘늑대사냥’에 대한 관객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나치게 잔인하다”라는 의견과 “본 적 없던 새로운 한국영화”

라는 반응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논쟁적 문제작’으로 화제몰이를 하며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서인국·장동윤 주연의 ‘늑대사냥’은 21일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청소년관람불가영화가 차트 정상에 오른 건 지난해 7월 ‘랑종’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관람가의 한계와 호불호 등으로 이틀째 ‘공조2: 인터내셔널’에 밀려 2위로 내려왔으나 영화를 향한 온라인 반응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극장·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통합 화제성 차트 키노라이츠에서도 극장 개봉작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관객들은 신체 절단·훼손되는 장면이 그대로 등장하는 영화의 지나친 잔혹성을 지적하며 혹평했다. 멀티플렉스 CJ CGV의 실관람 평점 시스템 ‘골든 에그’는 64%까지 떨어졌다. 반면 장르영화 팬들은 “한국에도 드디어 이런 영화가 나왔다”며 환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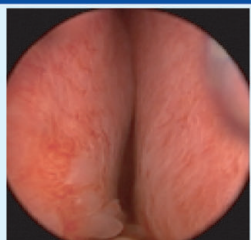
김홍선 감독이 프리퀀과 시릴 등 속편을 기획 중이라고 밝히자 SNS에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누리꾼의 호불호 논쟁이 오히려 영화에 대한 화제성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호불호가 나뉜 국내와 달리 해외서는 호평이 줄을 이었다. 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영화는 제46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돼 “장르적 재미가 극대화된 가장 재미있는 미드나잇 영화”(프랑스 퐁트 매거진), “지금껏 본 적 없던 작품”(미국 넥스트 베스트 픽처) 등 외신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대표적인 글로벌 평점 사이트인 로튼토마토와 IMDb에서는 각각 신선도 지수 100%와 평점 7.4(10 만점)를 기록 중이다.

김홍선 감독은 ‘늑대사냥’을 통해 쿠엔틴 타란티노·리들리 스콧 등 할리우드 거장 감독들이 소속된 미국 유명 에이전시 WMB와 계약까지 체결했다. 2014년 봉준호 감독 이후 한국감독이 계약을 맺은 건 8년만이다. 프로그래머를 통해 미리 영화를 본 WMB가 토론토영화제를 찾은 김 감독에게 먼저 미팅을 제안했고 계약까지 이어졌다. 김 감독에 따르면 WMB가 할리우드 유명 프랜차이즈 영화 연출을 제안했고, 김 감독이 이를 검토 중이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 전립선비대증



▲ 비대해진 전립선

**당일 검사 이후~  
시술후 퇴원 지향**

###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

신의료기술등재 (2015. 5. 고시)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전립선비대증 치료

전립선의 크기가 과도하게 커거나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경우 **레블릭스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비대증 수술도 가능합니다.

삶의 질을 악화시킬수도 있는 과민성방광 증상도 전립선과 함께 치료가 가능합니다.

※ 경우에 따라 염증과 출혈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기부전 (당일 원스탑 지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기 원리를 이용한...임플란트 보형물 시술로...**



<음경 보형물 삽입도와 후면 팀 엑스텐더가 조립된 상태>

팽창형 음경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 보형물** 시술

※ 수술 후 염증, 주변 조직 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수술 | 팽창형보형물 | 전립선수술 (유로리프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 220818-중-143523

## 유로진남성의원 <광고> (부산)

남성중점진료

- 남성수술
- 전립선수술(유로리프트)
- 발기부전(팽창형 보형물)
- 여성형 유방증 수술

24시간 상담

**유로진(부산)이 함께 하겠습니다.**

051) **802-7717**



부산광역시 서면역 주디스 태화백화점 3층

**NAVER** 부산유로진남성의원 검색